

4. 마을의 특징

1) 봉화산(烽火山)

항출도산 봉수가 위치했으며 나실(羅室)에서 가장 높은 산(山)이다. 항출도산 봉수는 남 쪽으로는 죽진[죽변 봉개마을]봉수와 통하고, 북쪽으로는 강원도 삼척 가곡산 봉수와 연결된 다. 봉화산 정상부에 있었으며, 일부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군부대 시설이 있으며, 최근에 울 진군이 봉화산을 중심으로 안보탐방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2) 서모제(鼠毛劑)

동해안의 암벽(巖壁)에서 이끼 모양으로 번식하는 해초류로서 ‘쥐 털과 같다’ 하여 서모 제(鼠毛劑)라 부르며, 옛 왕실(王室)의 약제기록(藥劑記錄)에도 올랐다고 전한다. 서모제는 야간(夜間)에 채취하여야만 약효(藥效)가 있으며, 햇빛이 비치면 약효가 사라진다고 여겼다.

3) 옥적곡(玉笛谷)

계곡(溪谷)의 노송(老松) 숲에 사찰(寺刹)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곳에서 옥적(玉笛) 소리가 나왔다 하여 옥적곡(玉笛谷)이라 한다.

4) 용혈(龍穴)

동해에 접한 해발 200m의 암석이 서쪽으로 갈라져 절벽을 이루며 아래쪽에 폭 3m 규모의 굴이 형성되어있으며, 또 하나의 구멍은 바다에 접하여 이를 용혈(龍穴)이라 부른다. 지금은 그 일부가 모래로 매몰되어, 양쪽으로 길이 20m의 굴이 나 있다. 옛날에는 폭포를 이루었다 하며, 가뭄이 들 때면 이곳에서 용제(龍祭; 祈雨祭)를 올렸다. 황룡(黃龍)이 있었다고 전한다.

제8절 나곡4리(羅谷四里)[속명 : 태봉(胎封)]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地脈)이 동으로 뻗어 그 한 줄기가 갈령이 동으로 뻗어 그 한줄기가 갈령(葛嶺)(加之嶺)을 이루고 다른 한 줄기는 고포리(姑浦里)의 뒷산인 고랑개산이다. 서쪽은 검성재(劍城嶺)며, 남쪽은 태산(胎山) 잔두리곡(谷) 산들이 있고, 북쪽은 갈령(葛嶺)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경계를 이룬다. 태봉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다. 현재 태봉초

등학교는 마을주민들이 숙박시설로 개조해 활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7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680년경에 최씨(崔氏)라는 선비가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였고, 1608년(선조 41)에 왕(王)의 권위를 전국에 선포(宣布)할 목적으로 왕녀(王女) 아지(阿只)의 태(胎)를 아흔아홉골이 있는 이곳에 매장하였다고 전한다.⁶ 태실은 1619년 6월 23일 태어나 그해 11월 4일 장례된 광해군 딸의 태실로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태봉(胎封)이라 하였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나곡리(羅谷里)라 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49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최씨(慶州崔氏)와 김녕 김씨(金寧金氏), 달성 서씨(達城徐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태봉(胎封)

1608년(선조 41)에 풍수설(風水說)에 의한 궁중법도(宮中法度)로 당시의 왕녀(王女) 아지(阿只)의 태(胎)를 이곳에 매장하고, 축단(築壇) 건비(建碑)하였다 하여 이곳을 태봉(胎封)이라 하였다. 태실비는 비갓과 비신 모두 대리석재류의 석질로 만들었으며, 비좌는 화강암재이다. 비 전면에 ‘萬曆四十七年六月二十三日生 王女阿只氏胎室’이라 새겨진 것으로 보아 1619년(광해군 11)에 만든 아지옹주의 태실로 확인된다. 비좌는 장방형이며, 비 전체 높이는 1.62m다. 전면에 2조의 방형을 음각하고 안상(眼像)을 각출하였으며, 상면에 복연(覆蓮)을 새겼다.

6. 심현용, 2016, 『한국태실연구』, 경인문화사